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싱가포르 컴케어(Comcare)운영 및 최저소득기준(MIS)계측 방법 자문
- 싱가포르-한국의 공공부조 선정기준 및 급여체계, 빈곤선 측정방법 비교 연구에 대한 합의 도출
 -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로 현행 최저생계비 방식을 보완할 포커스 그룹을 통한 최저소득기준(MIS) 계측 방법 자문
 - 싱가포르 Minimum Income Standards(MIS) 산출체계 및 활용현황/동향 파악
 - ComCare 대상자 선정, 급여 결정 및 사례관리 운영 절차 파악
 - 싱가포르 사회 전반의 빈곤 및 불평등 대응 정책 및 공공부조 등 소득보장제도 정책 자문

☐ 과제명

2024~2026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 출장기간

2026.07.13.(월). ~2026.07.18.(토).

☐ 출장국가(도시)

싱가포르(싱가포르)

☐ 출장자

임완섭 연구위원, 김예슬 전문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07.13.	서울(인천)			출국
07.14.	싱가포르 (싱가포르)	Saw Swee Hock School of Public Health (SSHSPH)	안서연, 홍민지	- 싱가포르 사회 및 복지제도 현황 및 특성, 불평등 관련 특성 등 자문
07.14.	싱가포르	National	손준모	- 싱가포르의 불평등, 사회적 자본,

	(싱가포르)	University of Singapore (NUS)/		복지제도의 맥락적 특성 관련 자문
07.15.	싱가포르 (싱가포르)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SUSS)	정유진, Sylvia, Terence, Chan, 홍민지, 안서연	- 싱가포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ComCare 운영 현황, 사회서비스 정책 및 Minimum Income Standards(MIS) 연구 동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한국 공공부조 관련 발표 포함) - 싱가포르의 공공부조, Health Systems & Policy 관련 자문
07.16.	싱가포르 (싱가포르)	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LKYSPP)/	Ng Kok Hok	- 싱가포르 Minimum Income Standards(MIS)의 산출방법, 표준가구 설정 기준, 세부 소비비목 및 최근 업데이트 현황, 정책 활용 사례 자문 - 한국 기준중위소득 및 기준생계비 산출체계와의 비교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논의
07.16.	싱가포르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추혜경	- 싱가포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례관리 운영체계, 공공부조(ComCare)와 사회서비스의 연계 방식,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자문
07.17.	싱가포르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Irene Y.H.Ng	- 싱가포르의 빈곤 및 소득보장정책, ComCare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운영체계, 표준가구 구성, 가족 우선 원칙, 복지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전문가 자문
07.17.	서울(인천)			귀국

2 출장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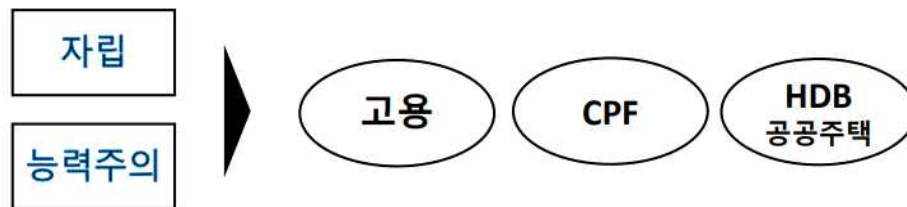
①	싱가포르 사회 및 복지제도 현황 및 특성, 불평등 관련 특성 등 자문
일 시	2026.07.14
장 소	싱가포르(싱가포르), Saw Swee Hock School of Public Health (SSHSPH)
참석자	안서연, 홍민지, 임완섭, 김예슬
□ 회의 목적 - 본 회의는 싱가포르 사회보장체계와 복지제도의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불평등 양상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검토하고 향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논의 내용

(1) 싱가포르 사회보장체계의 특징

- 싱가포르는 중국계 74.3%, 말레이계 13.6%, 인도계 9.1%, 그 외 3.0% (Population in Brief 2025, Department of Statistics, Ministry of Manpower)
-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체계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정부 지원을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싱가포르의 복지 체제는 일반적으로 생산주의적 복지체제(productivist welfare regime)의 성격을 가지며, 자산기반 복지 및 선별적 복지의 특성을 가짐
 - ◆ 자립과 능력주의, 가족 부양 우선, 지역사회지원, 정부는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 노동을 복지보다 우선



자료: 세미나('26.8.5).싱가포르 공공부조 특성 및 현황과 과제

- 중앙연금기금(CPF)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의료, 주거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공공부조인 ComCare는 일시적 위기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정부는 현금지원뿐 아니라 고용지원,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사회·경제적 변화와 불평등 특성

- 최근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주거비 상승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격차뿐 아니라 자산 및 주거 격차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중·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 증가와 청년층의 주거 및 고용 불안정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선별적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3) 한국과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 싱가포르는 공공부조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사례관리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가 비교적 확

성화되어 있음.

- 우리나라 역시 현금급여 중심의 지원과 함께 고용, 사회서비스, 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함.

□ 관련 합의

-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은 현금급여 수준뿐 아니라 고용, 의료, 주거 및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 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됨.
- 고령화와 가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부처 간 정책 연계가 중요.
-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뿐 아니라 자산, 주거, 고용 등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

②	싱가포르의 불평등, 사회적 자본, 복지제도의 맥락적 특성 관련 자문
일 시	2026.07.14.
장 소	싱가포르(싱가포르), Kent Ridge House, NUS(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참석자	손준모, 임완섭, 김예슬

□ 주요 논의 내용

(1) 싱가포르 복지체제의 특징과 성공 요인

- 싱가포르 복지체제는 실용주의와 개인 책임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
- 중산층 이상은 중앙적립기금(CPF)을 활용하여 주거·의료·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설계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현금지원과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다층적 구조를 유지
- 공공주택(HDB), CPF 및 자산형성지원제도 등을 연계하여 국민의 장기적인 자립 기반과 자산 축적을 지원
-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보다 고용, 저축, 주택 소유 및 가족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
- 복지제도 이용이 개인의 생산성 부족이나 자립 실패로 인식될 수 있어 복지수급에 대한 낙인이 존재
- 싱가포르 복지체제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정부의 강한 정책 집행력과 높은 행정 효율성이 주요하게 작용
- 공무원 부패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처벌 체계가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 형성에 기여
- 정부, 기업 및 민간단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의 직접적인 복지 책임을 보완
- 사회문화적 맥락과 제도적 기반이 한국과 상이하므로 싱가포르 제도를 국내에 적용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 필요

(2) 사회적 자본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중요성

-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핵심 요소로 신뢰, 사회적 관계망, 호혜성 및 사회참여 등을 고려할 필요

- 사회적 자본 측정에서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신뢰의 대상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대인 신뢰와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
- 싱가포르는 일반적인 대인 신뢰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임
-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는 특정 개인에 대한 신뢰라기보다 제도와 운영체계에 대한 신뢰로 해석할 필요
-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의 개념적 타당성과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동일한 문항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대상과 국가 특성을 반영한 문항 설계 필요
- 복지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 기준뿐 아니라 공무원과 정부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전제되어야 함
- 사회적 자본과 제도적 신뢰는 복지정책의 수용성, 정책 집행력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한국에서도 복지제도의 세부 설계와 함께 정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

□ 관련 함의

- 싱가포르 복지체제의 성과는 개별 제도뿐 아니라 높은 정부 신뢰, 행정 효율성 및 엄격한 책임체제가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필요
- 싱가포르의 자산형성지원제도와 공공주택 중심의 복지정책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노동시장, 가족구조 및 사회문화적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
- 사회적 자본을 측정할 때 대인 신뢰와 제도적 신뢰를 구분하고,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
- 향후 사회보장정책 연구에서는 소득 및 급여 수준뿐 아니라 제도 신뢰와 사회적 자본이 정책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할 필요

③	싱가포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ComCare 운영 현황, 사회서비스 정책 및 Minimum Income Standards(MIS) 연구 동향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개최
일 시	2026.07.15.
장 소	싱가포르(싱가포르), Singapore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SUSS)
참석자	Terence Yow, Sylvia Mun, Chan Whee Pheg, 홍민지, 안서연, 정유진, 임완섭, 김예슬
□ 주요 논의 내용 - 싱가포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민관 협력 구조 파악 - ComCare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결정 방식 검토	

- 싱가포르 사회서비스 정책의 주요 원칙과 운영 현황 파악

(1) 싱가포르 사회복지 전달체계

- 싱가포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전달기관과 민간 사회서비스기관이 연계되는 구조로 운영
- 지역 단위의 핵심 전달기관으로 Social Service Office(SSO)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사한 일선 상담·접수 기능 수행
- SSO는 지역사회 내 접근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여 경제적 어려움이나 복합적인 복지 욕구가 있는 주민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운영
- SSO 담당자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주거비, 전기·수도요금 체납, 의료비 지출,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
- 현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ComCare와 연계하고, 현금지원 이외의 욕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역 내 Family Service Centre 및 사회서비스기관에 연계
- Family Service Centre(FSC)는 가족관계,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고용 및 생활문제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제공
- 정부기관뿐 아니라 병원, 의료진,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사회서비스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연계
- 대형 공공병원에는 다수의 의료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환자의 의료적·경제적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재정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
- 명확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일선 담당자가 처리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계선 사례는 사례회의 또는 심사기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표준화된 단일 지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훈련된 실무자의 전문적 판단과 사례관리를 결합한 전달체계로 운영
- 현장 실무자가 작성한 사례(관리)보고서가 지원 수준과 서비스 연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전문적인 사례관리 역량이 강조됨

(2) ComCare 운영 현황 및 대상자 선정 방식

- 2005년 도입된 이후 장기지원, 중·단기지원 및 긴급·임시지원 등 대상자의 상황과 지원 필요 기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장기지원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지속적인 근로와 자립이 어려운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함
- 중·단기지원은 실직, 소득 중단,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성격을 포함
- 대상자 선정 시 개인보다 가구 단위의 생활 여건과 가족의 지원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
- 일정한 소득기준을 참고하지만 소득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신청자의 실제 필요와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 급여액과 지원 여부는 대상자의 소득·재산조사와 사회복지사의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 공식적인 급여 산정 기준과 세부 계산 방식은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연구자 관점에서는 제도의 일부가 ‘블랙박스’ 처럼 보일 수 있음
- 정형화된 최저생활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의료비나 특수한 가구 욕구에 기

반하여 사례별로 필요한 지원액을 결정하는 방식

- 명확한 사례는 일선 기관에서 결정하되, 지원 여부가 불분명한 ‘그레이 영역’의 사례는 지역사회 사례회의 등을 거쳐 결정
-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지침을 통해 예외상황을 모두 규정하기보다 실무자의 전문적 판단과 조직 차원의 검토를 통해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평가됨

(3) 가족 우선 원칙과 근로·자립 지원

- 싱가포르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지원에 앞서 개인의 자립, 근로 및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Family First 원칙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
- 부양할 수 있는 성인 자녀나 가족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실무자는 먼저 가족 간 지원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 가족 우선 원칙은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기준이라기보다 사회서비스 실무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강한 업무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작동
- 가족갈등이나 부양회피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가족 구성원 간 역할을 조정하는 사례관리 수행
- 일부 경우에는 부모 부양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통해 성인 자녀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보다 상담과 조정이 우선
-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 우선 원칙은 당분간 싱가포르 사회복지체계의 중요한 운영 원리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제시
- 한국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획일적 소득·재산 기준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중재와 사례 판단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으로 확인

(3-1) 부모부양법(Maintenance of Parents Act)과 가족부양 책임

- 싱가포르는 가족이 노부모 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부모부양법(Maintenance of Parents Act)을 운영
- 해당 법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등 부양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Social Service Office 및 Family Service Centre의 실무자는 부양 가능한 자녀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연락 단절 여부, 자녀의 경제적 능력 및 과거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자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실질적인 부양 가능성과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사례별로 판단
- 가족 간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갈등·학대 등으로 자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우선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적 지원을 제공
- 부모부양법은 한국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같이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기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성인 자녀의 사적 부양책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가족 간 조정을 촉진하는 성격이 강함
- 싱가포르의 Family First 원칙, 부모부양법 및 ComCare는 상호 연계되어 개인의 자립과 가족부양을 우선하되, 가족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최후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구조를 형성

(4) 사회서비스 정책 및 민관 협력

- 싱가포르의 사회서비스는 정부기관이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및 지역사회 조직과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 SSO가 소득지원과 초기 상담의 관문 역할을 하고, FSC 및 전문 사회서비스기관이 상담·사례관리·가족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를 분리하지 않고, 신청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현금·의료·고용·돌봄·가족지원 서비스를 연계
-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과 기관 간 의뢰·연계체계가 전달체계의 핵심 요소로 작용
- 의료서비스는 정부 보조, 개인의 의료저축인 MediSave, 고용주 또는 개인보험, 추가적인 의료지원기금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다층적 구조
- 소득이 충분한 가구라도 중증질환과 높은 의료비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조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5) 복지수급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 싱가포르에서는 공공부조를 개인의 당연한 사회적 권리라기보다 가족과 개인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는 최후의 지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함
- ComCare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수치심이나 부담감을 느끼는 사례가 존재
- 이는 행정기관이 의도적으로 수급자에게 낙인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가족책임과 자립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큼
- 중국계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상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문화가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사회복지사는 지원 신청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과 낙인을 고려하여 민감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상담하고 사례를 관리할 필요

(6) 싱가포르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

-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체계는 정부 보조, 개인 저축, 보험 및 공공기금이 결합된 다층적 구조로 운영됨.
- MediSave, MediShield Life, MediFund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지원을 함께 강조함.
- 소득수준과 이용 의료기관 및 병실 유형 등에 따라 정부 보조 수준이 차등 적용됨.
- 개인의 의료저축과 보험을 우선 활용하되, 이를 통해서도 의료비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적 기금이 최종 안전망으로 기능함.
-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소득, 가족관계, 치료비 부담 및 생활여건을 조사하고 적절한 재정지원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7) 공공부조와 보건·사회서비스의 연계

-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현금급여, 의료지원 및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 방식이 중요하게 활용됨.
- Social Service Office(SSO), Family Service Centre(FSC), 병원 및 민간 사회서비스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함. - 중증질환이나 장기치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증가한 가구는 기존 소득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활곤란을 함께 고려함. -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싱가포르 보건·복지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논의됨.
⑤	싱가포르 Minimum Income Standards(MIS)의 산출방법, 표준가구 설정 기준, 세부 소비비목 및 최근 업데이트 현황, 정책 활용 사례 자문
일 시	2026.07.16.
장 소	리관유 공공정책대학원(Lee Kuan Yew School of Public Policy)
참석자	Ng Kok Hok, 임완섭, 김예슬
□ MIS 연구의 배경과 기본 개념 - Ng Kok Hoe 교수는 MIS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저생활 수준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규명하는 연구라고 설명 - 즉, 의식주 중심의 절대적 빈곤 개념이 아니라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자존감(self-respect), 독립성(independence), 존중(respect)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수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MIS의 핵심(예: 향수나 장신구가 품목명으로는 보편 사치품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더운 기후에서 개인 위생과 타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거나 취업 면접, 결혼식 등에 적절한 모습으로 참여하기 위한 용도(머리끈, 작은 브로치 등)로 연간 50 SGD정도의 선에서 품목을 선정함. - 또한 연구 결과는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 □ MIS 연구 수행 단계 - 각 단계의 참여자는 중복되지 않으며, 한 참여자는 전체 연구과정에서 한 번의 그룹에만 참여(이전 그룹에서 합의된 결과를 새로운 참여자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참여자나 특정 집단의 의견이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1) Orientation Group : 최소생활수준의 정의 도출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Orientation Group을 운영하여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기본적인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실시(“기본적인 생활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연구진은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하는 생활수준은 무엇인가” 또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무엇인가”와 같은 방식으로 질문) -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참여 - 남녀, 소득수준, 인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 - 약 10명 규모의 그룹을 4개 정도 운영(그룹 당 약 2시간 진행)	

- 연구자는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MIS의 공식 정의를 작성
- 이 단계에서는 합의를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며, 이후 모든 연구 단계의 판단 기준이 되는 MIS 정의를 확정.

(2) Task Group : 필요 항목 선정

- Task Group은 MIS 연구에서 가장 길고 핵심적인 단계로, 그룹당 약 6시간 동안 진행하며 중간에 점심을 제공.
- 참여자들은 MIS 정의를 바탕으로 가정 내 공간별(거실, 침실, 주방 등)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물품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논의.
- Task Group부터는 품목을 최종 목록에 포함하기 위해 참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 이 때문에 MIS 포커스그룹은 일반적인 의견수렴형 포커스그룹과 달리 ‘합의 포커스그룹 (consensus focus group)’ 이라고 불림.
- 합의되지 않은 항목은 다음 그룹에서 다시 논의
- Task Group은 동일한 가구특성과 생활경험을 가진 참여자들끼리 구성. 다만 각 그룹 안에서는 성별, 인종 및 경제적 배경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함. 주요 가구 및 연령유형은 다음과 같음.
 - ◆ 독거노인가구
 - ◆ 노인부부가구
 - ◆ 55~64세 중·고령 성인가구
 - ◆ 65세 이상 노인가구
 - ◆ 한부모가구
 - ◆ 양부모가구
 - ◆ 26~54세 성인가구
 - ◆ 아동 연령별 가구
- 아동은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품목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다음과 같이 5개 연령집단 (0~2세, 2~6세, 7~12세, 13~16세, 19~25세)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그룹을 운영.
- 아동은 포커스그룹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동의 필요를 논의. 반면 성인과 노인 관련 그룹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가구유형이나 연령에 속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논의.

(3) Check-back Group : 결과 검증(이전 합의결과의 재검토)

- 이전 단계에서 합의된 목록을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여 적절성을 확인한다.
- 기존 합의 항목 검토
- 합의되지 않았던 항목 재논의
- 새로운 참여자가 이전 결과를 검증
- 현실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
- 이를 통해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사회적 합의를 강화

(4) Final Group : 최종 품목, 예산 및 공유규칙 확정

- 최종 단계에서는 산출된 예산 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앞선 단계까지 남아 있는 소수의 미합의 품목을 다시 논의하고 최종 품목목록을 확정

- 가구 내 공동 사용(Sharing Rules) 규칙 설정 등을 수행.
- 특히 공유 가능한 물품(컴퓨터, 책상, 장난감 등)의 공동 사용 여부를 결정(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장난감과 아동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공부책상을 각각 구입해야 하는지, 자녀가 3명인 경우 컴퓨터를 몇 대 보유해야 하는지)하여 다양한 가구유형의 MIS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 품목 합의를 위한 판단기준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s)의 역할

- MIS 포커스그룹의 퍼실리테이터는 일반적인 포커스그룹과 달리 참여자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토론을 구조화하는 역할. 일반 포커스그룹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불일치가 유용하지만, MIS에서는 품목목록과 예산을 산정해야 하므로 합의가 필수적.
- 싱가포르 연구팀은 4명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연구자들이 교대로 퍼실리테이터를 담당. 연구를 처음 시작할 당시 영국 MIS 연구팀을 싱가포르로 초청하여 교육을 받고 실제 포커스그룹 진행을 관찰하고 수퍼비전 받았으며, 이후 싱가포르 연구진이 영국을 방문하여 현지 연구 수행과정을 직접 관찰.

□ 전문가 활용 방식

- MIS는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 중심 연구이나, 일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병행한다.
 - ◆ **보건**(예방접종, 건강검진)등은 정부의 보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사와 자문을 실시한다.
 - ◆ **식품과 영양**(식품 분야는 영양사가 참여).
- 연구 절차는 [시민들이 실제 식생활을 제시 ⇒ 영양사가 건강한 식단으로 보완 ⇒ 다시 시민들이 현실성을 검토 ⇒ 최종 식단 확정] 순으로 진행하여 건강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확보.

□ 가격 조사 및 예산 산정

- 참여자들이 품목을 합의하면 연구진은 각 품목의 가격을 조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품은 온라인 가격을 확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연구진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가격을 조사
- 예를 들어 TV는 단순 구매가격이 아니라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연간 비용으로 계산.
- 또한 가장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합의한 품질 수준의 제품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함
- 연구진은 기본생활 품목인 만큼 우선 가장 저렴한 브랜드나 제품이 적절한지 질문. 그러나 가장 저렴한 제품의 내구성이 낮아 자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더 비쌀 수 있으므로, 참여자들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 가구유형 선정 및 MIS 계산

- MIS 연구보고서에서는 모든 가구구성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준가구(reference households)를 선정하였음.

- 기준가구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선정.
 - ◆ 인구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가구유형
 - ◆ 정책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높은 가구유형
-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부부가구는 싱가포르에서 비교적 일반적인 가구유형이므로 기준가구에 포함. 한부모가구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더라도 한 명의 부모의 소득만으로 자녀를 부양해야 하므로 경제적 압박을 분석하기 위해 포함.
- 성인 남녀, 노인, 연령별 아동의 필요와 공유규칙이 정리되면, 이 구성요소들을 결합하여 사실상 모든 형태의 가구예산을 계산할 수 있음. 싱가포르 연구진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원하는 가구원 구성을 입력하면 MIS 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한 MIS계산기(<https://whatsenough.sg/whats-enough-for-you/>)를 운영하고 있음.

□ 생활임금 산정 시 가구유형별 가중치 적용

- 각 가구유형에 따라 필요한 MIS 예산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국가 또는 사회 전체에 제시하는 생활임금은 하나의 금액으로 산출해야 함. 따라서 생활임금 산정 시에는 각 가구유형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
- 먼저 가구유형별 MIS 예산을 해당 가구의 취업성인 수로 나누어, 각 성인이 벌어야 하는 임금수준을 계산.
 - ◆ 예를 들어, 부모 2명과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MIS 예산을 부모 2명이 나누어 부담하지만, 부모 1명과 자녀 2명으로 구성된 한부모가구는 부모 1명이 전체 가구예산을 부담. 따라서 동일한 자녀 수를 가진 가구라도 성인 1명에게 요구되는 임금수준은 달라짐.
- 세 가구유형이 전체 인구에서 각각 50%, 30%, 20%를 차지하는 예시를 제시. 각 가구유형에서 성인 1명에게 필요한 임금이 각각 50%, 30%, 20%의 가중치를 적용한 후 합산하여 하나의 생활임금을 산출(아래[그림]참조).
- 이는 가구유형별 필요임금을 단순 평균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인구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가구유형의 필요임금이 최종 생활임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식.

[그림] Living Wage 산출방식

MIS \$ Wage	Population	Living wage weighting
HH① \$2000 2P, 2C	HH① 50%	= 50% x \$2000
HH② \$2500 1P, 2C	HH② 30%	+ 30% x \$2,500
HH③ \$3000 2P, 3C	HH③ 20%	+ 20% x \$3,000

□ 연구결과 활용

- 싱가포르 MIS 연구가 현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① 생활임금 옹호

- 싱가포르에는 한국과 같은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MIS를 토대로 근로자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임금을 산정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

②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급여의 적정성 평가

- MIS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비교하여 저소득가구에 대한 현금지원과 사회보장 제도가 실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평가함. 이를 통해 공공부조와 생계지원 수준을 보다 관대하게 조정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

③ NGO의 모금 및 지원사업 설계

- 아동교육이나 저소득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NGO에서 아동 한 명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후원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MIS 자료를 활용함. 또한 모금목표액, 가구별 지원액 및 사업내용을 결정할 때 MIS 예산을 참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지역 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MIS 검토(싱가포르와 지리적으로 상이한 조건)
-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포커스그룹 운영
- 연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사회적 신뢰 확보
- 물가 변화에 따른 정기적인 MIS 갱신(2년마다: 물가지수를 적용한 가격조정, 4년마다: 포커스그룹을 포함한 전체 현장조사 재 실시)
- 영국에서는 모든 가구유형을 한 번에 조사하지 않고 가구유형의 절반씩 나누어 조사함. 한 시점에는 노인가구 등 전체 유형의 절반을 현장조사하고 나머지 절반은 물가조정만 실시한 뒤, 2년 후 다른 절반의 가구유형을 현장조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매 2년마다 일부 가구의 품목목록을 새로 조사하면서 각 가구유형에 대해서는 대략 4년 주기로 전면적인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그러나 이에 따른 조사 및 연구진의 부담이 매우 큼.

⑥	싱가포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례관리 운영체계, 공공부조(ComCare)와 사회서비스의 연계 방식,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일 시	2026.07.16.
장 소	Kent Ridge Guild House - NUS(싱가폴국립대학교)
참석자	추혜경, 임완섭, 김예슬

□ 주요 논의 내용

(1) 싱가포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 싱가포르는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아니라 개인 → 가족 → 지역사회 → 정부 순으로 지

원이 이루어지는 Many Helping Hands(MHH) 원칙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공공부조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정부 지원 이전에 가족과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임.
- Social Service Office(SSO)는 공공부조 신청과 소득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Family Service Centre(FSC)는 상담,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2) 사례관리 운영체계

- 사례관리는 단순한 서비스 연계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공공부조 수급 이전에 심리·사회적 개입을 통해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임.
- 사례관리 실무는 Family Coach가 중심으로 수행하며, 대상자의 취업동기 강화, 정보 제공,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지원함.
-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은 단순한 급여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공공부조 의존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

(3) ComCare와 사회서비스의 연계

- ComCare는 소득기준뿐 아니라 의료비, 가족관계, 근로능력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 FSC는 직접 현금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며, 초기 상담과 욕구평가를 실시한 후 ComCare 대상자는 SSO로,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병원의 Medical Social Worker와 지역사회 사회복지사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Health & Social Care Integration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퇴원 이후에도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공기관 간에는 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 이력과 사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복조사와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음.

(4) 가족 중심 복지와 정책 운영

- 싱가포르는 Family First 원칙을 바탕으로 가족의 부양책임을 우선 고려하며, 부모부양법(Maintenance of Parents Act)과 가족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족 내 돌봄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주택정책, 공공부조, 사례관리 및 가족서비스가 상호 연계되어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공공지원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음.
- 가족중심의 정책 운영 방식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

(5)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 평가

- 사례관리의 효과는 단순한 급여 지급 여부보다 취업 여부, 경제적 자립, 공공부조 수급 종료, 공공주택 의존 감소 및 가족기능 회복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음.

- 다만 Family Coach 제도나 사례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평가는 아직 제한적이며, 현재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논의됨.
- Minimum Income Standards(MIS) 연구는 정책 도입을 위한 기준이라기보다 정책 제안과 사회적 논의를 위한 연구 성격이 강하며, 실제 정책 반영 여부는 정부의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됨.

□ 관련 합의

- 싱가포르의 사례관리 체계는 현금지원 중심이 아니라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통합 사례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임.
- 병원과 지역사회 간 통합사례관리,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다기관 협력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다만 싱가포르의 정책은 가족책임과 선별주의를 강하게 전제로 하고 있어,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제도적 배경이 상이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⑦	싱가포르의 빈곤 및 소득보장정책, ComCare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운영체계, 표준가구 구성, 가족우선 원칙, 복지공무원 재량권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일 시	2026.7.17.
장 소	Department of Social Work, Social Service Research Center, NUS
참석자	Irene Y.H. Ng, 임완섭, 김예슬

□ 싱가포르 빈곤 측정 및 공공부조 운영 원칙

- 싱가포르는 현재 공식 빈곤선(Official Poverty Line)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빈곤 규모를 측정하였으나 19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빈곤 측정의 중요성이 감소.
- 200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확대에 따라 빈곤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으나, 정부는 빈곤선 대신 필요(needs)에 기반한 지원체계(layered support)를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빈곤선을 설정할 경우 기준선에 따른 Cliff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 이유로 제시.

□ 소득불평등 및 ComCare 도입 효과

- 싱가포르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약 0.4 수준이며,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함(2024년 기준 : 시장소득 기준: 0.433, 세금·이전지출 반영 후: 0.364,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Stat), 2024)
- 1980~1990년대를 거치며 지니계수가 크게 상승하여 2007년경에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했으나, 이후 Workfare와 ComCare 제도가 도입되면서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이 확대되어 소득불평등이 완화되었으며, 현재는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평가됨

□ Family First 원칙의 변화

- 싱가포르 사회보장체계는 개인 → 가족 → 지역사회 → 정부 순으로 책임을 지는 최소 국가(minimal state) 원칙을 유지.
- 다만 최근에는 고령화, 저출산, 소가구(1-2인 가구, small households) 증가, 생활비 상승,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등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ComCare 선정기준 및 급여 산정

- ComCare는 표준 급여표(Standard Benefit Schedule)를 공개하지 않으며 사례별 필요에 따라 지원액을 산정.
- 사회복지 담당자는 소득, 자녀 수 및 연령, 건강상태, 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액을 결정.
- 현재 알려진 기준은 1인당 월 640 싱가포르달러 수준(SMTA 기준)이나, 의료지원(MediFund), 교육지원(MOE Financial Assistance), 공공주택 지원 등은 각각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통일된 선정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ComCare 지원액은 표준화된 급여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MSF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사례평가 워크시트(worksheet)를 활용하여 가구별 지원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됨. 해당 워크시트에는 취업 여부, 자녀의 연령, 자녀의 추가적인 필요(교육·돌봄 등), 가구의 기본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입력하여 지원 수준을 산정하며, 이러한 내부 산정기준은 공개되지 않음.
- 즉, 싱가포르는 내부 산정 워크시트(assessment worksheet)를 활용한 사례별 맞춤형 결정(case-by-case assessment)이 핵심 운영방식.

□ 사회복지 담당자의 재량권

- 싱가포르 공공부조는 사례관리 담당자의 재량권(discretion)이 매우 큰 것이 특징.
- 동일한 소득 수준이라도 사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장점과 함께 지원의 일관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음.
- 비교연구(Julia Wang 교수(국립대만대학교)가 이끄는 국제 공동연구에서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공공부조 제도 관련 국가비교 연구)에서도 싱가포르는 재량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 평가됨.

□ 급여 조정 방식

- 한국과 달리 공공부조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자동 연동(indexation)하지 않음.
- 정부가 일정 기간마다 검토하여 필요 시 인상하는 방식으로 운영

□ Child Development Account(CDA)

- CDA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초기지원금(Initial Deposit)을 지급한 후, 추가 저축에 대해

정부가 Matching Savings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초기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매칭저축은 저축 여력이 높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소 역진적(regressive)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함.
- 싱가포르 정부의 Child Development Account(CDA) 제도는 모든 아동에게 First Step Grant 5,000싱가포르달러(S\$5,000)를 지급하고(최대), 부모가 CDA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자녀 순서에 따라 최대 S\$5,000~S\$15,000까지 1:1 매칭 지원을 제공함.

□ CPF 운영

- CPF 적립금은 크게 세 계좌로 관리.
 - ◆ Ordinary Account (OA): 주택 구입, 교육, 투자 등에 사용
 - ◆ Special Account (SA): 노후자금 적립 목적
 - ◆ MediSave Account (MA): 의료비 및 건강보험 지출 목적
- 현재 CPF 보험료율은 근로자 20%, 사용자 17% **총 37%**를 적립하고 있음.
- 적립금에는 정부가 보장하는 이자가 부여되며, OA는 기본 연 2.5%, SA·MA·RA는 기본 연 4.0%의 이율이 적용됨
- 정부는 CPF를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 system)으로 운영하며, 현재 근로자의 보험료로 현재 노인을 부양하는 부과방식(pay-as-you-go)이 아니라 개인별 계좌에 적립된 자산을 기반으로 급여가 지급.

□ CPF와 공공주택(HDB)

- CPF 적립금은 주택구입, 의료, 교육, 노후소득 등에 활용되고 있음.
- 다만 HDB는 99년 임대권(99-year lease) 구조이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은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이 존재.
- 현재 일부 공공주택은 잔여 임대기간이 20년 이하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자산으로서의 기능 약화가 향후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 일부 젊은 층은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사용 가능한 기간은 짧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첫 주택 구입자(first-home buyers)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음.

3

출장 증빙

①

회의 현장 사진

